



10월의 서면 즐거운 ‘축제’가 기다린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10월 4~5일 / 서면문화로 / 다양한 의료체험·풍성한 이벤트

2019 전포카페거리 축제

10월 19~20일 / 대만 바리스타·아비가일 출연/즐길거리 가득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부산진구는 ‘나를 변화시키는 마술 가게’를 주제로 10월 4일, 5일 양일간 제9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지하도에서 개최되었던 작년 축제와 달리 영광도서 앞 서면문화로 및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대에서 개최된다. 개막행사는 10월 4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축제의 핵심인 의료체험 행사에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20여 개의 의료기관과 각 단체들이 참여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3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해 가상성형, 피부·두피진단, 안압검사, 시력교정 및 노안 진료, 임플란트 및 교정 상담, 갑상선 초음파, 혈관상태 측정, 비만도 측정, 난임 상담, 하지정맥류 진료 등 무료 의료체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K-뷰티 메이크업쇼, 버스킹 공연, 건강OX 퀴즈,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서면역 9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축제 행사장을 찾을 수 있다. 문의 : 관광위생과 의료관광계 (605-6021~3)

■2019 전포카페거리 축제=10월 19일과 20일은 제3회 전포카페거리 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지난 2018년 큰 사랑을 받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컨셉을 이어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는 축제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축제 부스는 더 풍성하고 다양해진다. 2016년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인 대만의 버그우와 대만커피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대만커피를 선보인다.

작년 전포카페거리 축제를 빛낸 파라과이 출신 방송인 아비가일은 직접 부스를 운영, 독특한 남미의 물건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포카페거리의 확장판인 전리단길, 전포사잇길의 유명 바리스타, 디저트점도 참가해 전포동 일대의 유명 커피, 디저트들을 한곳에서 맛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은 전포카페거리의 입구에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계단을 오르며 실제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카페거리 바닥의 다양한 포토스팟을 즐기며, 시간마다 나타나는 시계토끼, 카드병정들의 퍼레이드에 남녀노소 모두 지루할 틈이 없다.

노천카페, 아트프리마켓, 다양한 체험부스, 디제이와 함께하는 공연에 이르기까지 종류대로 입맛대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문의 : 관광위생과 관광진흥계 (605-4524)

헤민스님 초빙 마음치유 콘서트

10월 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 ‘희망아카데미’ 개최

부산진구는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구청 대강당에서 ‘헤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 주제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다.

헤민스님(사진)은 미국 하버드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공부를 하던 중 출가를 결심, 2000년 봄에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아 조계종 승려가 되었다. 이후 프린스턴대학교 종교학 박사 과정 중 북경과 오사카에서 유학하였으며, 박사 졸업 후 매사추세츠주의 햄프셔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역임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비롯해 ‘짧은날의 깨달음’과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을 쓴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한민국 힐링멘토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헤민스님은 우리 안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부산진구 시민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선착순 4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 교육지원과(605-4871~4), 부산진구 평생학습관(605-6381~2)



부산진구 새로운 놀이관광

‘와이파이 사진작가’가 뜬다

정부 공모에 부산진구 선정

사업비 4억8,000만 원 들여

전포카페거리 등 5곳에

공공와이파이·카메라 구축

‘인생샷’이 스마트폰에 ‘쏙’

스마트 보물찾기도 ‘재미’

음의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황령산 전망대 △전리단길 등 5개 명소에 고품질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총 8대의 와이파이 사진작가를 설치할 계획이다.

5개 지역에 구축되는 공공와이파이는 해당지역에 특화된 와이파이 네트워킹이다. 해당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지역포털서비스와 와이파이 사진작가, 스마트 보물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포털서비스는 별도의 검색 없이 인근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 상점 등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와이파이 사진작가는 와이파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뜨는 ‘와이파이 사진작가’를 작동시켜 셀카봉 없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포즈로 고해상도의 멋진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받거나 SNS로 바로 올릴 수 있다.

스마트 보물찾기는 상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나, 골목에 숨겨진 QR코드 등을 찾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놀이다.

부산진구는 11월 말까지 관련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놀이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재무과 정보통신계 (605-4174)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완료… ‘감고개공원’ 탄생

단절된 터널 좌우측 연결

참나무숲, 잔디광장 조성

주민 편의시설 등도 갖춰

수정터널 상부공간이 완벽한 공원으로 변했다. 부산시는 9월 9일 오후 4시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발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타당성 조사연구를 맡아 시작됐다. 당시 가야동 주민들은 수정터널 진입구간이 터널 좌우측 지역을 단절시키고 상권을 침해하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많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정터널 상부공간을 덮어 녹지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2014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201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16년 3월 정식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2016년 4월부터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갔다.

동의대 입구 수정터널 상부 공원의 정식명칭은 ‘가야감고개공원’으로 정해졌다.

‘감고개공원’은 공원이 들어선 가야동 옛 명칭에서 따 왔다. 동의대 야구장 뒤편 수정동으로 넘어가는 고

개가 감고개, 시령(柿嶺) 등으로 불리었다. 가야동 일대에 감나무가 많아 고갯길 이름도 감고개라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감고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조선시대까지 수정동을 비롯한 부산포 갯마을과 지금의 당감동, 동래, 구포 등으로 연결되는 지름길로 지역의 실크로드 역할을 담당해 오던 고갯길이었다. 감고개공원은 지역의 옛 지명을 되살려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지역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원은 가야동 수정터널요금소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직선거리 180m 구역에 총면적 9,0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정터널 상부 공간에 인공지반(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참나

무, 영산홍 등 관목 10종 2만2670주, 에란 등 지피식물 12종 1만1360본을 심어 보기 좋게 꾸몄다.

여기에 1181㎡ 면적의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도 들어서 멋진 공원으로 변모했다.

커뮤니티센터는 주민협의회의 자율 운영으로 마을카페, 작은 도서관, 강 의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수정터널 개통으로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심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원은 이 일대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 : 창조도시과 도시재생계 (605-5824)



수정터널 상부공간이 멋진 공원으로 탄생했다. 공원의 정식 명칭은 가야감고개공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진구 어린이집 미세먼지 걱정 끝

전체 어린이집 163곳에 ‘에어커튼·방진망’ 설치

“미세먼지, 부산진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어렵도 없다.”

부산진구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 163곳에 미세먼지 차단시설인 에어커튼과 방진망을 설치했다. 에어커튼 설치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에어커튼을 설치한 곳은 부산진구가 부산의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부산진구는 지난 2월 관내 어린이집 151곳에 공기청정기 648대를 설치해 보육실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출입문의 개폐 시에도 바깥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에어커튼까지 설치한 것이다.

에어커튼은 위에서 아래로 압축공기를 분출시키고, 공기막을 만들어 바깥쪽과 안쪽을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에어커튼 아래쪽 흡입구를 통해 걸러진다.

에어커튼 설치로 외부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 공기청정기 설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됐다. 여기에도 여름과 가을철 해충의 유입까지 막을 수 있게 됐다. 냉난방 시에도 출입문을 통한 실내온도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다.

에어커튼 설치가 불가능한 소수의 어린이집은 방충망과 같은 원리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방진망을 설치해 미세먼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계 (605-4376)

“건강한 노후·활기찬 100세 인생 기원”

10월 1일~11일까지 다채로운 노인주간행사 개최

부산진구는 노인의 달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건강한 노후, 활기찬 100세 인생'을 주제로 제5회 노인주간행사를 개최한다.

10월 1일은 오후 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식전공연과 모범노인 시상, 100세 장수노인 청려장 전달 등이 진행된다. 청려장

(靑藜杖)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법고 단단한 명품 지팡이로, 통일신라 때부터 장수한 노인에게 임금 이 이 지팡이를 하사하는 전통이 있었다.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획기적인 노인돌봄정책인 통합돌봄선도사업 출범식도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

원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 동안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실버노래자랑이 열린다. 또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구청 백야홀에서는 어르신 작은 박람회도 개최된다.

이 기간 노인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와 고령친화용품, 치매예방검사, 노인유사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8일 오후 2시에는 대강당에서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흥겨운 무대가 마련되는 경로당 어울림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이밖에도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바둑과 장기 등의 최고수를 가리는 실버바둑·장기대회 결선이 열려 관심을 끌 전망이다.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관내 당구장에서 당구 최고수를 가리는 실버당구대회 결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계 (605-4322),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808-8090)

부스, 퍼스널컬러 컨설팅(자기직업색깔 찾기) 부스 등이 운영된다. 취업타로 등 재미있는 부대행사 부스도 들어선다.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카페도 운영돼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후 4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인 상진여목의 박용준 대표가 초빙돼 '기업 성장과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605-6342), 부산진구 일자리센터 (605-6403)

다.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년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계 (605-4865)

부산진구 자원순환 나눔장터 개최 안내

폐기를 감량과 나눔을 실천하는 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9년 10월 제2회 부산진구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 10. 12. (토) 10 : 00 ~ 15 : 00
[신청접수 : 9. 23. ~ 9. 27.(신청초 30명 모집시까지)]
- 장소 : 초을 어린이대공원 입구
- 참여대상 : 의류, 잡화, 도서 등 중고물품 교환·판매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30명)
- 행사내용
 - ▷의류, 잡화,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물품 교환·판매
 - ▷업사이클링 코사지 만들기 체험(드림플러스아트 협찬)
 - ▷폐정바지 재활용 제품 교환 행사(매정바지 3벌 당 예코백 1개 교환)
 - ▷자원순환 홍보 부스 및 폐전지통·종이팩 교환 창구 운영
 - ▷직원 기증 중고물품 판매부스 운영(수익금 전액 이웃돕기)
 - ※ 우천 시 행사 취소
- 문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계 (605-4451)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9월 16일~9월 30일
- 재산세의 납기는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됩니다.
 - ▶7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 ▶9월 :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지방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http : //etax.busan.go.kr 접속 전자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납기 전월까지) 후 납부 : 건당 500원 세액공제
 - ▶자동차이체만 신청 : 150원 세액공제
 - ▶전자고지만 신청 : 350원 세액공제
- 문의 : 세무1과 재산세1계 (605-4231~5) 재산세2계 (605-4241~5)



서면문화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영광도서 앞… 무더위·미세먼지 차단 인공안개 분무

부산진구는 9월 10일 서면문화로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했다. (사진)

쿨링포그시스템은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노즐을 통해 인공안개로 만들어 분무하는 폭염저감 장치다.

쿨링포그가 작동되면 인공안개가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온도를 3~5℃가량

낮춘다.

인공안개가 먼지까지 잡아주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

쿨링포그시스템은 서면문화로 영광도서 맞은 편 부산탑 분수대 인근 30m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 온도 28도 이상인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된다. 문의 : 안전지원과 안전관리계 (605-4644)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9월 17일부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부산진구보건소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감염 예방을 위해 9월 17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10월 15일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가 접종을 받으면 된다.

10월 2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의료·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은 신분증,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증 등 대상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645-400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튼튼하게’

부산진구, 부산 최초 플라스틱 재질 면허증 발급

부산진구는 8월말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면허증을 글자, 지게차, 불도저, 타워크레인, 로더, 기중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최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부활하면서 면허증 갱신 수요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면허증 재질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전자식 PVC 면허증(플라스틱 재질 면허증)으로 개선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종이 코팅 형태로 제작, 발급하고 있다. 이번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함에 따라 디자인과 내구성이 향상되었고 20분 정도 소요되던 발급시간도 5분으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문의 : 도시정비과 도로

점용관리계 (605-4791)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

부산진구 우수상 수상

부산진구는 부산시 주관 2019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수확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진구를 비롯해 영도구, 금정구, 중구, 사상구, 기장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부산진구는 세수확충 노력, 미환급금 정리, 지방세부터 관광정보까지 QR코드 원스톱 안내 등 우수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 세무2과 세정기획계 (605-4182)

소방통로 확보 합동훈련

구청·경찰서·소방서 참여

부산진구는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경찰서와 합동으로 8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반 동안 부전시장 주변에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트라젠오피스텔에서 부산진 등기소까지 구간에서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긴급차량의 통행을 저해하는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통행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 이동시킬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민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주차관리과 주차단속계 (605-4562)

“고객 만족도를 높여라”

부산진구 직원 친절교육

부산진구는 9월 3일 구청 10층 소극장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여권과장이 강의를 맡았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부산진구는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기별로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친절 토크 배너를 통한 고객 응대별 공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계 (605-4264)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소파침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이다.

SFTS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설사 등의 증세를 거쳐 심하면 숨질 수도 있다.

별도의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

특히, SFTS바이러스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웅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족사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 받기

※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605-6080

사망자 재산조회 시 ‘셀프상속등기’ 안내

■사망자 발급 서류=1. 제적등본 2.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4. 기본증명서 5.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자 발급 서류
 - 법정상속에 의한 상속=1.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전원) 2. 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3.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전원) 4. △토지 : 토지대장 등본 △건물 : 건축물대장 등본 △집합건물 : 집합건물(대장등본 전유부분), 토지대장 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5. 취득세영수필확인서 6. 국민주택재권매입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8. 상속인의 신분증, 도장
 - *상속인 중 한명이 내방하면 위임장 첨부할 필요 없음
 - *상속인 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명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접수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 전원) 2. 인감 증명서(상속인 전원) 3.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전원) 4. 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5.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전원) 6. △토지 : 토지대장 등본 △건물 : 건축물대장 등본 △집합건물 : 집합건물 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 취득세영수필확인서 8. 국민주택재권매입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 협의상속인의 신분증, 도장.
 - *상속분가조 한 사람이 신청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명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접수
- ▶본 안내문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식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에 문의바랍니다. (☎1544-0773)
- ▶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계 (605-4771 ~ 4776)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내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2019년 10월부터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생활 속 운동실천 [태극권 134]
 - 내용 : 태극기공 기본동작을 익히고 내 건강을 도모하며, 함께 운동하기
 - 일시 : 10. 1. (화)~12. 24. (화)
 - ◎ 2회(주2회, 화·목요일 09 : 00 ~ 10 : 00)
 - 대상 : 지역주민 20명
- 활력 UP! 근력 UP! [실버튼트]
 - 내용 : 인디아가(배드민턴+배구), 세라밴드 등 활용 유·무산소 운동
 - 일시 : 10. 1. (화)~12. 24. (화)
 - ◎ 2회(주2회, 화·목요일 13 : 00 ~ 14 : 00)
 - 대상 : 지역주민(60세 이상) 20명
-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공유부엌]
 - 내용 : 영양지수 평가, 체성분 측정, 조리체험교실(2회), 영양교육
 - 일시 : 10. 15. (화)~11. 5. (화)
 - ◎ 4회(주1회, 화요일 14 : 00 ~ 16 : 00)
 - 대상 : 지역주민(60세 이상) 20명
- 당감을 부탁해! [건강플러스스타]
 - 내용 : 생명존중교육, 인지강화활동(마음정원사, 보드게임, 아로마 테라피 등)과정 수료 후 자원봉사 가능
 - 일시 : 10. 15. (화)~12. 5. (화)
 - ◎ 16회(주2회, 화·목요일 10 : 00 ~ 11 : 30)
 - 대상 : 지역주민 20명
- 몸과 마음을 밝히는 [줄바댄스]
 - 내용 : 신체균형 유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는 전신운동
 - 일시 : 10. 1. (화)~12. 24. (화)
 - ◎ 2회(주2회, 화·목요일 14 : 30 ~ 15 : 30)
 - 대상 : 지역주민 20명

★신청 : 9. 16. (월)~9. 30. (월)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5층 신청소 방문접수(신청접여자, 대상종후군 위험요인 유소견자 및 당감·개급·부암지역주민 우선 신청)
★문의 :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5층(605-6115~9) * '건강플러스스타' 과정만 중복신청 가능, 우수참여자 시상(2020년 채택단원실 3개월 이용권 증정)



민원이 있는 곳, 부산진구의회가 간다

의원들, 부산진구 민원현장 곳곳 왕성한 현장방문

최근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여러 곳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며 의회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서면삼익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창조도시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민원인과 만나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안고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장을 비롯한 창조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방문, 민원인들과 만났다. 민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이후 민원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상에 모여 앉아 서류로만 민원사항을 접하다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기는 다양한 의문점 등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9월 17일 오후에는 연지동과 전포동 민원현장을 찾았다. 연지동에서 만난 민원인은 집 옆에서 진행되는 대형 아파트 공사 때문에 큰 불편을 느낀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전포동에서 만난 민원인들 역시 주변의 대형아파트 단지 공사로 인해 고충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민원인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9명의 의원이 10건의 조례안 발의

제29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부산진구의회 제295회 임시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했다.

장강식 의장은 9월 4일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구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며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안건이 많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려 9명의 의원들이 10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미경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이승민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감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문돌 부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일태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현옥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약취방치 및 저감 조례안’, 송만정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범기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단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9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추석 명절 복지시설 방문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추석을 앞 둔 지난 9월 6일 관내 복지시설인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부산진구의회, 세수 10억 증대

개별공시지가 문제 제기로 세수 증대 끌어내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가 세수를 무려 10억 원이나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7월 30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

앞서 부산진구의회는 5월 14일 개최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 결과 중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대한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주변 공시지가와 형평성에 맞는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것을 구청

에 요청했다.

의회 요청에 따라 부산진구청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당초 16,560,000원/m²이었던 공시지가를 23,410,000원/m²으로 조정하였고, 인근 지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표준지가를 수정, 공시지가를 조정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진구는 당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대비 10억 정도를 증액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세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은 “지방에서 수익을 올린 대기업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기초의회에서 노력하였으며, 구청 예산 중 주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



10월 20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2013년 1월 1일 대행 업무를 시작한 컵업체는

나머지 3개 업체에서 1개동씩 분배받아 3개동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0업체에서 해고된 58명의 노동자 중 22명만 고용승계를 했다.

2019년 현재 컵업체가 청소대행용역을 시작한 지 7년째임에도 아직까지 업체별 담당구역은 강자의 독식 현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청소대행업체별 용역비 금액을 보면 A업체가 43억(39.4%), B업체가 28억(25.5%), C업체가 27억(25.3%), D업체가 10억 원(9.8%)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게 담당구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대행용역업체별 담당 구역을 평균화하여 2010년 0업체의 노사분규 파업으로 발생한 부산진구 구민들의 불편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호천마을에서 바라본 야경 한 가지 만으로도 충분히

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호천문화플랫폼을 아름다운 루프탑으로 만들자.

이곳을 청춘들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며 머물다가는 상품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호랭이 어슬렁길에서 호천문화플랫폼을 연결하는 도로도 난관을 느껴며 걸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주거지주차장을 함께 조성한다면 초읍동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축과 활용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 활용, 주차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연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축은 부산진구청 생활SOC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다행복교육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성현옥 의원, 비례대표)=지구촌 곳곳에서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부터 국내 연안에서 발견한 죽은 바다거북 40여마리를 부검한 결과 모든 사체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생산하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

지금까지 사용 후의 처리방법에 지중해였던 쓰레기 관련 정책을 예방적 차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구내 전 부서에서 행사시 제공하는 기념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대신 친환경제품 또는 재사용 가



능한 제품으로 선정하자.

둘째, 부산진구 관내 커피전문점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셋째, 부산진구 소재 6개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례문화를 개선하자. 넷째,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 살리기에 부산진구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책과 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친환경시대를 그려나가야 한다.

■공영주차장 운영 지적에 대한 நட장행정 개선 촉구(고성숙 의원, 비례대표)=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입찰 취소로 인해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한 일을 성급하고 미숙한 행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8월 6일과 22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두 번 모두 유찰되었다.

즉시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2개월여 동안 방치한 후 입찰공고를 했던 것이다. 담당자부터 구청장까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5월 1일부터 최소 4백만 원 이상의 세입 결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하는 행정을



사진이 과다하게 게재됐다.

부산진구신문은 각종 시책, 사업, 미담소식, 상식 등을 알려주는 소식지이자 구청장 개인의 홍보물이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분기1회 구청장 사진은 무한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고 답하겠지만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본다. 편집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

■구청 공백 없는 방향으로 해외출장방식 개선해야(배영숙 의원, 가야2동·개금2동)=지금까지 구청장 해외출장 관련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 왔다.

그런데 구청장 취임 이후 5번의 해외출장을 가면서 한 번도 예산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지난 7월 10박 13일간 방문한 코스타리카, 미국, 캐나다 출장은 문제가 많다.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였고 협의회가 입여부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부산진구는 회원구가 아니며, 참여대상도 아니다. 방문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면 해당 협의회 명의의 공문을 받고 해외출장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 해외출장업무를 처리



우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고, 10일 이상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청장의 해외출장은 사전계획 하에 예산도 편성하고 엄격한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며 구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편법 지출한 항공료를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안내

새롭게 태어난 [의회소식지] 구독하세요! 의정소식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도 함께 담은 ‘부산진구의회소식지’ 구독 신청하세요.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의회간행물 구독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의회사무국 (605-6452)

부산진구신문 광고 게재 문의 : 신문편집실 ☎605-4078



부산진발전협의회



부전1동 새마을단체



양정1동 아이클생협



전포1동 이웃사랑청구회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초읍동 밀양공업사



부암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범천2동 자유총연맹

■ **‘맑고 향기롭게’ 쌀 10,000kg 전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9월 4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10kg들이 쌀 1,000포 3,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 불자모임으로 1994년 발족했다. 이후 지난 20여 년간 이웃돕기 성품 기탁, 장학금 지원, 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사회복지법인 동일 성품 1,000만 원 기탁**=사회복지법인 동일(이사장 김경자)이 9월 5일 이웃돕기 성품 1,000만 원을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성품은 부산진구와 어린이재단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소액기부운동인 「천원의 사랑」 단인의 행복」에 전달돼 복지사각지대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동일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안심정사 부산도량 자비의 쌀 1,000kg**=안심정사 부산도량(회장 안스님)은 9월 4일 쌀 1,000kg 3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안심정사는 부산, 논산, 대구, 대전, 창원, 제주 등 전국에 6개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부산진구에 기탁한 쌀은 총 4,000kg 1,2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진구는 8월 안심정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이노디어스 플렉센터’ 운동화 50족 전달**=메이커스페이스 이노디어스 플렉센터와 부산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 3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커스텀운동화(아동실내화) 50족을 기탁했다. 커스텀운동화는 플렉센터(센터장 정운기, 이미경)와 부산관광고등학교 비즈쿨동아리가 공동 제작한 신발이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사)부산진발전협의회 쌀 600만 원 전달**=(사)부산진발전협의회(회장 박상국)는 9월 9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쌀 200포 600만 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전달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전달됐다. (사)부산진발전협의회는 2019년 6월 이웃사랑, 나눔행복을 위한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발족한 친목단체이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쌀 1,500kg 기탁**=(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정종원)은 9월 4일 부산진구에 쌀 1,500kg 48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사)불교지도자포럼은 불교도인 부산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재가불자 모임이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각종 봉사활동, 학술대회 지원, 장학금 지원, 불교동아리 후원 등의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BNK금융그룹 성품 3,500만 원 기탁**=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부산은행장 반대인)은 9월 5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생필품 700상자 3,500

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생필품 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700세대에 전달했다. 부산은행 직원들은 9월 9일 부산진구 관내 122세대를 직접 방문해 성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주)아이·오·비 물류 쌀 250만 원 전달**=(주)아이오비물류(대표 박진)는 9월 2일 250만 원 상당의 쌀을 부산진구에 전달했다. 쌀은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주)아이오비물류 박진 대표는 2010년부터 부산진구청과 인연을 맺어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백미를 기탁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팀 성품**=부전1동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팀(팀장 도선녀)은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100매와 양곡 10포를 부전1동주민센터(동장 박종진)에 기탁했다. 성품은 서면성모안과, 세홍병원, 필한의원, 천일회집에서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무료 의료봉사는 2016년 4월부터 시작했다. 문의: 부전1동주민센터 (605-6519)

■ **부전1동 새마을단체 성품**=부전1동 새마을단체(지도자협의회장 김창근, 부녀회장 소미경) 회원들은 9월 10일 라면 100박스 120만 원 상당과 경로당에 전달할 때, 과일 등의 성품 80만 원 상당을 부전1동주민센터(동장 박종진)에 기탁했다. 문의: 부전1동주민센터 (605-6501)

■ **골목골목 찾아가는 윈스북 복지상담**=부전2동주민센터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3곳을 방문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윈스북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상담실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의: 부전2동주민센터 (605-6537)

■ **연지동 새마을부녀회 이불 기탁**=연지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경)는 9월 10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연지동주민센터(동장 김병호)에 차림이불 40채 12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성품은 이웃돕기 1%나눔 후원사업과 주거지주차장 운영 수수료 등으로 마련했다. 문의: 연지동주민센터 (605-6566)

■ **풀마실 은빛교실 생활정보 제공**=초읍동주민센터(동장 김종국)는 8월 22일 만 65세가 도래하는 54년 9월생, 10월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책을 설명하는 풀마실 은빛교실을 열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주택연금 등 노인복지 시책과 무료예방접종 지원, 지하철 승차권 신청, 치매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 **바르게살기운동 초읍동위원회 성품**=바르게살기운동 초읍동위원회(위원장 김병숙)는 9월 13일 추석 이웃돕기 성품으로 초읍동주민센터에 성품

50만 원을 기탁했다. 문의: 초읍동주민센터 (605-6587)

■ **부산진아이클 생협 나눔꾸러미 지원**=부산진아이클(GOOP)생협(이사장 김민진)은 9월 2일 양정1동주민센터(동장 박희수)에 나눔꾸러미 40개 1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나눔꾸러미는 유기농 백미, 김치, 김, 라면 등의 생필품이 구성돼 있다. 문의: 양정1동주민센터 (605-6611)

■ **양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푸짐한 선물**=양정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민경열)는 8월 29일 양전경로당과 진남경로당을 방문해 위원들이 모은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또 이날 10kg들이 쌀 20포 70만 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양정1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문의: 양정1동주민센터 (605-6611)

■ **양정2동 영양제 지원**=양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형근, 안명숙)는 관내 저소득층의 성장기 아동·청소년 50명에게 4개월 분량의 영양제를 지원하는 ‘나누어요~희망비타민’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소액기부운동인 ‘천원의 사랑 단인의 행복’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양정2동은 약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환쿠폰을 지급해 편의를 도모했다. 문의: 양정2동주민센터 (605-6635)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협약**=전포1동(동장 김정홍)은 8월 22일 전포생활문화센터 2층에서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회장 호산스님)과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주거환경개선 소요경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 참여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한다. 문의: 전포1동주민센터 (605-6647)

■ **전포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전포1동(동장 김정홍)은 8월 22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날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의: 전포1동주민센터 (605-6647)

■ **전포파출소 성품 전달**=전포파출소(소장 백기남)는 9월 17일 전포1동 독거어르신에게 직원들이 마련한 성품 10만 원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했다. 문의: 전포1동주민센터 (605-6647)

■ **소방서·소방안전위원회 성품품 전달**=부산진소방서(서장 박철만)는 9월 10일 소방안전위원회(회장 이진수)와 함께 전포2동 홀로어르신 3가

구를 방문해 성품 30만원과 이불, 백미, 과일 등을 포함한 총 150만 원 상당의 성품품을 전달했다. 문의: 전포2동주민센터 (605-6677)

■ **소방관·의용소방대원들의 성품**=부전119안전센터(센터장 허재영)는 9월 10일 의용소방대 부전지역대원(대장 송세길)들과 함께 전포2동주민센터(동장 이성현)를 방문, 2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문의: 전포2동주민센터 (605-6677)

■ **부암1동 이웃돕기 성품품 답지**=부암1동에도 이웃돕기 성품품이 속속 답지됐다. 바르게살기운동 부암1동위원회(위원장 황덕계)는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쌀 114만 상당의 성품품을 기탁했다. 서면라이온스클럽(회장 박희덕)은 온누리상품권 150만원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전달했다. 부암1동 통장친목회(회장 신영일)는 마트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박정희 주민자치위원장은 30만원의 성품을 각각 기탁했다. 문의: 부암1동주민센터 (605-6714)

■ **부암3동 선암사 템플스테이**=부암3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선암사 템플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지금까지 주민, 학생, 미취학 어린이 등 8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찰 예절 배우기, 점심 공양, 연꽃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9~10월 중에도 20여명의 대가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의: 부암3동주민센터 (605-6722)

■ **당감1동 작은도서관 개관 5주년 북페스티벌**=당감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희복)는 9월 7일 당감1동 주민센터와 당감1동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 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행사로는 부산진구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플루트공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가곡목수리츠 등이 진행됐다. 체험행사로는 모스화본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 등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문의: 당감1동주민센터 (605-6757)

■ **조식지원사업 아침빵! 추진**=당감1동주민센터(동장 이상무)는 9월 4일부터 당감초등학교(교장 구상순)와 함께 관내 선풍장과자점(대표 장현섭)의 후원으로 결식 우려 학생 10명에게 매일 아침 빵을 지원하는 ‘아침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당감1동주민센터 (605-6753)

■ **당감제일교회 성품 100만 원 전달**=당감1동 소재 당감제일교회(목사 양성희)는 9월 5일 당감1동주민센터(동장 이상무)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문의: 당감1동주민센터 (605-6753)

■ **다사랑어린이집 국수 20박스 성품**=당감4동 소재 다사랑어린이집(원장

황정화) 원아와 교사들은 9월 5일 당감4동주민센터(동장 김옥근)를 방문해 국수 20박스를 기탁했다. 문의: 당감4동주민센터 (605-6812)

■ **가야송림어린이집 성품 30만원 기탁**=가야1동 소재 가야송림어린이집(원장 배미경)은 9월 5일 가야1동주민센터(동장 문경수)에 성품 30만원을 기탁했다. 문의: 가야1동주민센터 (605-6878)

■ **두배로마트 쌀 400kg 기탁**=가야동 소재 두배로마트(대표 최인재)는 9월 11일 가야1동주민센터(동장 문경수)에 쌀 10kg 40포 104만 원 상당을 성품으로 기탁했다. 문의: 가야1동주민센터 (605-6878)

■ **어르신 국수 무료급식**=가야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순덕)는 9월 11일 가야골길강문화센터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효 국수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문의: 가야1동주민센터 (605-6822)

■ **바르게살기 가야1동위원회 장학금 120만 원**=바르게살기운동 가야1동위원회(위원장 박승동)는 9월 5일 가야1동주민센터에서 관내 거주 모범 중·고등학교 4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문의: 가야1동주민센터 (605-6877)

■ **약초한의원 쌀 300kg 기탁**=약초한의원(원장 정대훈)은 9월 5일 가야1동주민센터(동장 문경수)에 백미 10kg 30포 78만 원 상당을 성품으로 기탁했다. 문의: 가야1동주민센터 (605-6878)

■ **웃음 치료 프로그램 개강**=가야2동주민센터(동장 한영웅)에서는 9월 2일 감고개카페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12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문의: 가야2동주민센터 (605-6848)

■ **개금1동 보송보송 이불세탁**=개금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위한 이불세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세탁된 이불을 가정에서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세탁하기 힘들었던 이불을 깨끗한 상태로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라며 고마움을 표실했다. 문의: 개금1동주민센터 (605-6881)

■ **한울타리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단장 권경일)은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은주)의 도움으로 9월 8일 개금1동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방문해 벽지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부산진구 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문의: 개금1동주민센터 (605-6895)

■ **개금1동 통장협의회 이·미용 서비스**=개금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영

선)는 9월 10일 저소득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했다. 통장들은 이날 직접 마련한 식혜와 송편을 대접하고, 소정의 추석선물도 전달했다. 문의: 개금1동주민센터 (605-6895)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성품**=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대표 이순형)은 9월 9일 개금2동주민센터에 추석선물 50세트 1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 성품은 개금2동 저소득 주민 50세대에 전달됐다. 문의: 개금2동주민센터 (605-6915)

■ **개금2동 청년회 성품 전달**=개금2동 청년회(회장 조성준)는 9월 10일 개금2동주민센터(동장 박진형)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성품은 지난 8월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문의: 개금2동주민센터 (605-6915)

■ **개금3동 사랑의 집수리**=개금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조권철)는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저소득계층 4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이날 도배와 장판, 방충망 교체, 방수작업 등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문의: 개금3동주민센터 (605-6927)

■ **세계비전교회 쌀 240만 원 기탁**=개금3동에 있는 세계비전교회(담임 목사 임은제)는 추석을 앞두고 쌀 10kg들이 80포 240만 원 상당을 개금3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문의: 개금3동주민센터 (605-6929)

■ **개금동새마을금고 양곡 300kg 기탁**=개금동새마을금고(이사장 윤수열)는 9월 10일 쌀 10kg들이 30포(환가액 720,000원)를 개금3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문의: 개금3동주민센터 (605-6929)

■ **청소년지도협의회 쌀 전달**=범천1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신용섭)은 8월 30일 범천1동 주민센터(동장 김주원)를 방문해 백미 10kg 20포를 전달했다. 문의: 범천1동주민센터 (605-6956)

■ **범천2동 자유총연맹 200만 원 성품**=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 범천2동 분회(회장 이진희)는 8월 30일 사랑의 포장마차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 20세대에 각 10만원씩 총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문의: 범천2동주민센터 (605-6979)

■ **결혼이주여성 고향음식 만들기**=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복희)와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유진)는 9월 6일 구청 11층 조리실에서 결혼이주여성 4개국 12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고향음식 만들기 ‘네고향 스페셜’ 행사를 가졌다. 네라, 팔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은 필리핀의 에스카베체, 중국의 마라두부 등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지급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계 (605-4364)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지역연계 배움터’ 운영

텃밭 작물재배 농부 체험

굴렁쇠 굴리고 딱지치기

암벽 등반 ‘도전 클라이밍’

운동·음악·한자 배우고

코딩·3D프린팅도 배워

아이들 “올 때마다 행복해”

부산진구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다. 텃밭에서 고추를 키워 수확하는 아이들은 농부의 노고를 체험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굴렁쇠를 굴리고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인공암벽을 등반하며胆력과 체력을 키우는 아이들, 복싱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붉은 땀방울이 맺혀있다. 피아노와 드럼을 치고 그룹댄스를 익히는 아이들은 힘든 줄 모른다. 한자와 사자성어를 줄줄 읽는 아이들, 4차산업의 기본교육인 코딩과 3D프린팅까지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진구의 교육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진구는 배움, 놀이, 축제 등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지역연계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배움터에는 지역 내 마을학교, 생태학교, 교육공동체, 복지관 등 10곳의 마을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각자 특화된 시설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해 12월까지 총 16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놀이, 악기, 취미, 야외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움터 참여기관 가운데 산아래마을학교는 백양산 선암사 주변 텃밭에서 ‘나도 농부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생 아이들은 텃밭에 물을 주며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고추와 상추를 수확한다.

‘잠지공원놀이터’ 프로그램에서는 굴렁쇠 굴리기와 딱지치기 놀이를 한다. ‘나무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나무를 조립하고 색칠을 하면서 작품을 만든다.

(사)디아코니아부산이 운영하는 당감바람청소년오케스트라에는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백양로교회 강당에서 바이올린, 첼로, 성악 등을 배운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중인 ‘도전! 클라이밍’은 암벽등반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인 ‘하트바디’ 프로그램도 ‘하트’하다. 다 함께 맛있는 찜을 배우는 그룹댄스, 샌드백을 두들기는 복싱 체험을 한



도전 클라이밍



잠지공원놀이터



나무랑

다. 교육공동체인 ‘엄마품에’는 생활한자교실과 4차산업혁명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아이들은 한자와 고사성어를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코딩교육, 3D프린팅 교육까지 받는다.

배움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재미있고 올 때마다 행복하다”며 매우 만족한다. 배움터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고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



나도 농부야



코딩교육



나무랑

램이 진행되기에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안정에도 좋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학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지원과 다행복교육계 (605-5852)

정부가 인정한 부산진구 청소행정

일회용품 회수체계 전국 영상회의에서 호평 받아

부산진구의 청소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진구는 2019년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일회용품 회수체계 전국영상회의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진행됐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역혁신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참여했고 지방에서는 시·도 정부혁신책임관들과 시·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

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와 서울 용산구, 대구 중구 등 3개 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구 중구청은 테이크아웃 1회용품의 회수를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빈컵 받아주기 참여가게’를 운영하고 참여가게에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시책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는 구청 내에 대화용품대여소를 설치해 스테인리스컵과 스테인리스 접시, 유리잔 세트 등을 대

여함으로써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책은 새로운 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회수에서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이 보완할 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부산진구가 발표한 정책은 정부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청소행정과장은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전용휴지통 설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과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IoT 스마트분리배출함 설치·운영 등 3가지를 발표했다.

테이크아웃컵 전용휴지통 설치는 부산 최대 변화가자자 카페 밀집지역인 서면과 전포카페거리의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회수에 가장 효율적인 정

책으로 평가받았다. 전용휴지통과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해 남은 음료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도시미관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도 채택되었다.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과 종량제봉투 교환사업도 총18회 운영으로 일회용품 40,600여 개를 회수해 주민 참여 및 실적 부문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부산시와 구청, 기업체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IoT 스마트분리배출함 설치·운영사업은 IoT와 재활용품 회수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행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문의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 (605-4430)

부산진우체국, 임시청사 2곳으로 이전

우편접수·금융업무는

영광도서 옆 영업동에서

우편물 배달업무는

개금 물류동에서 담당

부산진우체국(국장 권수일)이 가야동 청사 개축에 따라 인근 지역 2곳의 임시청사로 이전한다. 임시청사는 기존 업무를 분리해 영업동과 물류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편접수와 금융 등 창구업무는 9월 23일부터 영광도서 옆인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부전동 397-47, 1층)에 마련된 영업동에서 담당한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9월 30일부터

개금지하차도 인근인 부산진구 개금온정로26번길 41(개금동 296-1)에 마련된 물류동에서 담당한다.

현재 가야동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은 1979년에 건립되어 40년간 운영돼 왔다. 그러나 건물이 좁고 첨단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힘들어 최근 늘어나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진우체국은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개축하기로 하고 당분간 임시

청사로 이전하게 됐다.

신청사는 20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대지 4,691㎡, 건축면적 12,824.97㎡,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건립되며 오는 10월에 착공한다. 특히 물류, 우편, 금융의 복합업무 공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설로 재탄생한다. 문의 : 부산진우체국(대표번호 810-0700, 지원과 810-0855, 0851)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부산시 관내 법원을 관할로 하는 3,000만 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50만 원)으로 처리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번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은행에서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사정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구조 내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현 변호사)

BRT공사로 중앙대로 일부 통제

(간선급행버스체계)

양정교차로~서면(광무교) 일정별 1~3개 차로 통제

부산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내성교차로~서면(광무교)까지 구간에서 시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치공사로 인해 중앙대로 일부 차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BRT공사는 올해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9월 16일 착공됐다. 총연장은 6.6km이며 22곳의 중앙정류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진구 BRT 공사구간인 양정교차로~서면(광무교) 구간은 9월 23일부터 가변차선이 폐지됐고 일정별로

중앙차선 1~3개 차로가 통제된다.

통제되는 차로에는 고정펜스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부산시는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동천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9월 1일부터 일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중 NC백화점 서면점에서 센트럴스타까지 740m 구간의 동천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상관이 승용차의 상시 통행이 가능하다. 문의 : 교통행정과 운수관리계 (605-4843)

가야1동 429가구 대상 ‘마을건강’ 조사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에서는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야1동 429가구 대상으로 ‘가야1동 마을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건강조사는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동 단위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근거한 마을건강계획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항목은 건강과

마을에 대한 인식 등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마을건강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5-6111)

초연중학교 학생들, 어르신 말벗 봉사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박웅성)는 8월 24일부터 초연중학교(학교장 박성준) 봉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말벗 봉사활동 ‘어르신과의 따뜻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부전1동주민센터(동장 박종진)가 대상자를 알려주면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독거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정서를 살피고 유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르신과의 따뜻한 하루’ 행사는 지난 5월부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봉사동아리 ‘누리봄’과 함께 진행중이다.

초연중학교 봉사동아리 학생들과는 7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진행된다. 봉사동아리 가입 및 봉사활동 신청은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 여성가족과(605-4864),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807-4864)

단신

자동차정비조합 재능기부 명절 대비 차량 무상점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부산진구지회(지회장 황의년)는 추석을 앞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시민공원 인근 부산진중학교 앞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승용차, 승합차를 대상으로 기본 안전점검을 해주고 부동액·워셔액 등 각종 소모품과 와이퍼·전구 등을 교체하는 재능기부를 했다. 점검을 받은 한 시민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명절을 앞두고 ‘안전’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 (605-4657)

“응급상황 발생 시 필수” 가야1동 심폐소생술 교육

부산진구보건소는 안전지원과와 연계해 8월 30일 가야1동 걷기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회원 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직접 체험했다. 가야1동 걷기동아리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 중인 올바른 걷기 수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5-6111)

‘백세! 젊음의 잔치’ 10월 3일 KBS부산홀에서 개최

대한실버회는 노인의 달을 맞아 부산일보사와 부산지역 실버대학들의 후원으로 10월 3일 KBS부산홀에서 ‘백세! 젊음의 잔치’를 무료로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초대가수 공연, 문화공연, 색소폰 연주, 사향곡, 마인드 강연 등이 진행된다.

젊음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대한실버회에 신청하면 된다. 2,50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 : 대한실버회 (010-8627-1016, 010-5509-3105)

불이 나면 어린이·노인은 무조건 먼저 대피

화재 발생 시 어린이와 노인은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시 대피가 늦어져서 생길 수 있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불이 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초기에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도 되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대피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약자는 상황 불분하고 대피가 먼저다. 현대건축물 자체는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독성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재난약자는 무조건 대피부터 해야 한다. 문의 : 안전지원과 안전관리계 (605-4645)



가야공원과 가야천

맑고 청정한 공기와 질고 푸른 숲 속의 계곡에서 여유를 만끽한 뒤 근처 식당가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이 도심 속에 있다. 1968년에 유원지로 결정되고 이후 1984년 가야유원지로 개장했다가 1992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가야공원이다.

가야공원은 부산진구 가야동 엄광산 골짜기에 탐방객을 위한 산책로,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동래부사였던 김선근(고종17~20년)의 영세불랑비와 정인학(고종31~32년)의 선정불랑비가 있는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1419년 6월 19일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이충무장군의 대마도정벌 기념비도 있다. 이 비문에는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가야공원은 지방2급하천인 동천의 지천들 중 하나인 가야천이 흐르는 상류계곡에 있다. 그 아래에는 옛날에 감남골이라 불렀던 곳이 있다.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야천은 대부분이 복개되어 주택지와 도로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감남골 아래로 흐르는 가야천의 풍부한 수량이 장동에간들(감남골 아래에 펼쳐진 논으로 된 평야)을 농경지로 발달시켰고 마을주민의 주요 식수원과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장마철이나 폭우 때가 아니면 엄광산 아래 가야공원을 거쳐 흐르는 가야천에서 큰 물소리를 듣거나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애석한 일이다. 엄광산은 일제강점기 한때 고원전산이라고 억지로 불려야만 했으나 동래부지, 동래군지 등의 기록에 의해 1995년 비로소 본 이름인 엄광산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삼국유사의 6가야 기록에서 의미를 찾다보면 가야의 유래를 추측할 수

있다. 가야의 지명도 정중양이라는 뜻의 갑우에서 나온 말이다. 감고개, 가모고개, 가마고개로 왕래했던 까닭에 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갑우나라고 불렀기에 가야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야리란 명칭은 이 감고개의 아랫마을이란 뜻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가야동에 속한 이 지역은 태종 9년 양주에 속했다가 세종 10년에 동래현의 속현인 동평현(지금의 당감동 일대)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동평면 가야리로 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서면으로 편입되었다. 동래부지 병리지에 보면 '가야리는 동평면에 속한 지역으로 관문에서 20리 거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야동의 유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04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동평면과 단절되면서 가야동 지역은 서면의 가야리가 되었고 상리마을, 중리마을, 가야리마을로 나뉘어졌다.

가야공원 일대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농민들이 토벌과 갈대로 엮은 집에서 전답을 이용해 살아온 자연마을이었다. 임진왜란 이후로는 대대로 이어 살아오던 달성서씨 문중의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가야공원은 한때 '서씨공원'이라고 불리었으나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개방하면서 가야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직까지 끊임없이 물줄기를 이어가며 동천의 지천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가야천의 모습을 보면 대견하다. 가야천이 흐르는 가야공원을 보면 딱히 가야의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보여줄 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마르지 않고 늘 샘솟으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길게 지표로 흘러내리는 가야천의 시작점에 가야천 발원지 표지석을 세웠으면 한다.

(슬위는 동천 대표 이용희)

소정이 닥기 프로젝트



김다희 시인의
꽃보다 사람 ⑥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무척 좋아하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제1기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좋은 선생님(박경미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축제에 열렸는데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서 뽐내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서양화였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거기에 맞춰 전공과 화교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잉여’라 자칭하는 것을 심심찮게 본다. 잉여의 뜻은 말 그대로 ‘여분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

수품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힘든 세대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자조적인 모습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렇게 ‘잉여’로 거론되는 청년들의 자기 비하하는 급기야 자존감 하락으로 치달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사라진 나약한 청년이 아닌, 예의바르고 주관이 뚜렷한 고운 청년을 만났다. 마음씀씀이까지 참 예뻐올해 26살 작가이자 청년CEO 이소정, 흡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말리아의 여배우 소피아로렌을 닮아 ‘소피’라는 별명을 가진 눈망을 또렷한 이 시대 청년대표주자다.

경력단절을 운운하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와 달리 벌써 결혼하여 둘째가 아들까지 둔 당당한 여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소정아트’를 운영하며 유아 미술을 지도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는 중이기도 하다.

“미술 감사 일을 하오던 중 문득 책에서만 봐오던 미술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치 망설임 없이 하던 것을 멈추고 홀로 미술관을 찾아 무작정 떠났습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터키-이슬람 미



청년CEO 이소정

술박물관 등 여러 나라를 정신없이 다녔는데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다양한 영감은 그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미술해설사(도슨트)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김규영 목장공예 명장님을 만나게 되어 목조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통공예와 전통을 담은 현대적인 작품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 심취해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에 입학해 일주일에 한 번 부산에서 부여를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할 만큼 이소정 청년CEO의 열정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뜨겁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쫓아 예술 쪽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현실과 좀

쯤 부딪쳐 지칠 때가 있지만 훗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는다며 주위에 좋은 스승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계속 공부해서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아이가 아직 어려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오기까지가 오롯이 제 시간입니다. 짧은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속력을 내 해치워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친정 부모님께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식은 애물단지라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곁을 시켜도 부모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언제쯤이면 홀로서기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늘 곳은 날만 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보면 유행가 노랫말처럼 쟁하고 해뜰날 있겠지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야무지고 당차다. 머지 않은 가까운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성공한 젊은이로 이름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그럭저럭 그럭저럭 역시 무척 부지런해 24시간을 쫓고 살고 있다. 거기다 인성마저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소정이 같다면야...’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BTS 멤버가 다녀간 곳 ‘나도 갈래’

부산시민공원·카페·연지동 곱창집에 팬들 ‘복작’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다녀간 부산진구의 공원과 카페, 맛집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BTS는 2019년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 그룹이다. BTS의 인기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곳이 명소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부산 공연을 마친 뒤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부산 시민공원을 찾았다. 비가 살짝 흠뻑리는 날 뷔는 우산을 들고 공원을 산책하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 사진이 BTS 공식 트위터에 올라왔다.

부산시민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이 호재를 놓치지 않았다. 뷔가 사진 속에서 멈춰선 자리에 발자국 모양과 함께 ‘방탄소년단 뷔 사진 촬영 장소’라는 문구를 새기고

아예 ‘뷔 로드’까지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이들은 뷔가 산책했던 시민공원을 찾아 뷔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다.

뷔가 절친인 배우 박보검과 함께 찾아가 참외주스를 마셨던 시민공원 인근 연지동 C 카페도 명소로 떠올랐다. 팬들은 뷔와 박보검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똑같이 참외주스를 마시고 간다.

연지동의 한 곱창집도 ‘BTS 특수’를 맞았다. 곱창집에 행운을 준 주인공은 정국(본명 전정국)이었다. 정국은 아이들이라면 모두 알다시피 부산 출신이다. 정국도 뷔와 마찬가지로 짬을 내 부산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 정국이 찾은 곳은 평소 단골인 것으로 추측되는 연지동의 곱창집이다.



부산시민공원을 산책하는 뷔(사진 왼쪽). 정국이 다녀간 연지동 곱창집에 온 팬들(사진 오른쪽).



이 곱창집도 시민공원과 가깝다.

정국은 곱창집 사장을 ‘○○삼촌’이라 부른다. 정국을 목격한 아이들에 따르면 정국은 가족들과 함께 이 곱창집에서 외식을 하고 싸인까지 남기고 갔다는 것. 정국과 같은 곱창집에서 같은 시각에 곱창을 먹은 행운의 아이들은 정국과 악수하고 정국의 싸인까지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

다고 한다.

정국이 다녀갔다는 목격담이 줄을 잇자 탄식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았다. 해당 곱창집에 같은 날 곱창을 먹으러 갔지만 시간이 엇갈려 정국을 못 본 팬들이다. 이들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문의 : 연지동주민센터 (605-6563), 부산시민공원 (850-6000)

2019년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시험일보다 원서접수일이 2달 빠르므로 미리 교육신청하세요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신규자 176기(주2)	11.04~12.13	월~금 09:00~17:20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74기(이2)	11.22~12.07	월~금 18:30~22:20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국비지원교육 가능
간호(조부)사회자격소지자 507기(이2)	12.09~12.23	토: 13:00~19:00 일: 09:00~17:20	

▷부산시 인가 제1호 교육원
▷한 번 만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알려진 교육원
▷(사)정암100세누리사업센터 운영으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혜택

정암요양보호사교육원 ☎ 868-3411
도시철도1호선 시청역 1번 출구(부산시청 옆)
-치매방문요양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2010/2012/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평가
4년 연속 방문요양/방문목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정암재가치매지원센터 ☎ 868-3511

균열보수작업 **고압청소작업** **침투기초작업**
도막중도작업 **외벽방수작업** **우레탄마감작업**

우레탄방수전문업
시공은 꼼꼼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방수상담 010-3563-0600
시공후~A/S~3년콜

MEDI 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90129-증-87840 [광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공단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특수 여성질환 클리닉 필수 예방접종

전 의료진이 정성을 다해 진료하는 검진센터

CT·MRI 내시경·초음파
쾌적한 검진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MEDI 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송림대로 145 지하철 동래역1.5번 출구
예약전화: (051) 553-6400 http://busan.kahp.or.kr

내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kahpbus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kahpbusan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ahpbusan

지붕 개량(리모델링) 슬라브옥상에
확실한 방수!! 단열효과!!

최고의 장점 지긋지긋했던 누수 끝!
귀찮은 페인트칠 끝! 파손 걱정 끝!
간편한 시공, 대부분 하루만에 끝!

칼라강판은 어떤 형태의 지붕도 아름답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수명 반영구적! 칼라강판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 단열효과까지 갖춘 경량지붕재! 고온열처리(특수코팅)로 저후도색이 필요없습니다.

적용 예 슬라브 옥상, 기와 지붕, 싱글 지붕, 슬레이트 지붕, 조립식 지붕, 사할·교회·공장 지붕

포항칼라 강판 문의 : 010-5524-0043

애 림 요 양 원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1/2/3/4등급 시설급대대상자
- 입소비용 : 등급별 입소 비용의 80%를 건보공단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부산에서 최고의 시설로 손꼽히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 산과 어우러져 맑은 공기와, 탁트인 전망, 자연친화적 환경

안창마을 입구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보각사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상담문의 ☎ 051-715-5001
010-8552-5855

유료광고

어머니 학생 모집

어머니 **중 학 생** (2년 졸업)
어머니 **고등학생** (2년 졸업)

국가지원 무상교육

모든 과목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수업으로 재미나면서 행복한 학교생활로 소년 시절 못다한 꿈!! 미용고등학교에서 펼쳐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위치 : 부암동(통학버스 운행)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
문의 : (051)805-6131~4

‘물의 시인’ 오정환 선생을 기리며

올해 초, 문득 이승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마치 물처럼 흘러가버린 한 시인의 1주기 추모식을 마치며 그의 단단한 생의 뿌리를 한번 들춰봅니다. 1947년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오տ한 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하는 관성의 힘으로 불면(不眠)의 시대를 시로 버텨낸 오정환 선생, 그는 천상 우리들 스승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늘 불의와 맞서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던, 하지만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겐 따뜻한 희망의 언어로 힘을 북돋우신 당신은 우리 부산 문단의 큰 버팀목이자 그늘이었습니다. 지난한 시절, 그 누구도 맡기 꺼려했던 부산작가회의와 부산 민예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발화(發

花)점을 위해 무던히도 애쓰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어른으로서 혹은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항상 귀를 내어주시던, 그리고 늘 단아한 몸짓과 여유로운 웃음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만드는 그 인품은 아마 선생의 문학적 이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1973년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시고 부산 동성고 교사로 재직하던 1981년 『採鑛記(채광기)』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들어서면서 ‘떨어져 쌓이는 좌절을 실어/ 나르며/ 혼미의 동굴, 숨죽여 누운 아들의/ 깊은 강을 건너 / 나의 불면의 貨車는 달리고 있다’라는 등단작의 한 구절처럼 선생의 삶은 진정한 깨우침을 통해 시작 진실을 찾아내려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

다.

게다가 ‘아침 햇살 밝아올 때까지/ 풀뿌리로 흘러내리는 물//흔들림 없는 도(道)의 창(窓)/내세움 없는 덕(德)의 문(門)이여’ (『노자마를 거닐기』시 중에서)로 이어지는 시적 연속성 위에 모든 세계의 시원(始原)으로서 물, 살아 움직는 생명과 늘 낮은 곳으로 임하려는 겸허함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포용이 자리하는 그 물의 본성을 단 한순간도 문학적으로 놓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궁구한 이 우주의 원리를 주역을 통해 풀어내려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을 시를 통해 한 편 한 편씩 완성시키려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선생과의 인연은 부산진구 관내에 이웃한 학교의 선배교사로서 또 한 시단의 어른으로서 게다가 당신의 귀한 두 분의 아들을 직접 가르친 이

그러나 이용에 따른 운전자 준수 사항 인식과 관련법이 미비해 사고 발생 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면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전동휠은 레저용 놀이기구로 착각하기 쉽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

를 함유한 건강보조 식품으로 유산균 제제라는 제품이 시판되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과 같은 의미라고 알고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다른 여러 가지 유익균과 함께 유산균 중에서 유익한 균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보다는 넓은 범위로서 유익한 모든 균을 의미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익균을 포함한 제제로서, 유익균 이외에 기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첨가물은 유익한 균들의 먹이를 정하는데, 유익균의 먹이가 장에 풍부해야 유익균들이 장내에서 증식과 정착을 잘 하게 된다.

이러한 첨가물로서 대표적인 것으

유로 말미암아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더욱더 소중하고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생전 평소애 늘 팔을 아끼시고 행동을 우선으로 여기시던, 그렇기에 그 여백 사이에 깊게 사랑을 올리는 마음이 참으로 컸기에 지금의 이 빈자리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일관되게 중앙이 아닌 지역을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를 곳곳이 지켜 오신 선생의 그 변함없는 발자취를 다시 되짚으며, 지난 1주기 추도식에 당신을 기억하며 쓴 헌시의 마지막 몇 구절을 마음으로 대신합니다. 선생은 늘 우리들 기억 속에 항상 소중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들었던 술잔과 절제된 언어들은/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상처 난/모든 것을 품는 강과 바다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예감한, 다시/처음으로의 관성에 철저히 순응한 당신은/이제 물이 되었다, 물이 곧 당신이 되었다’ (『물을 노래하다』시 중에서)

김요아킴(시인, 부산 경원고 교사)

이므로 인도로 운행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고를 줄이려면 최고속도를 더 제한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 두면하·읍주운전을 적극 단속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하겠다.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605-4654)

로 올리고당과 기타 당류가 있다. 한편 음식물 중에서도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이 많다. 치커리 뿌리, 돼지감자, 우엉, 아스파라거스 등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유익균이 장내에 증식하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과량 섭취는 가스를 동반한 구토감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산균, 유익균, 대장균 및 프로바이오틱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건강 보조 식품을 선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규 교수
(동서대학교
화학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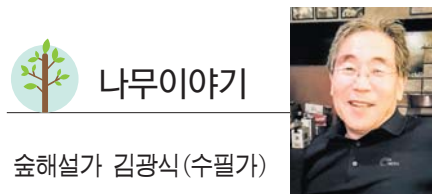
모감주나무



미루나무

여름철 나무 전체에 노란꽃 만발 ‘모감주나무’

‘아름다운 버드나무(美柳)’ 뜻을 가진 ‘미루나무’



나무이야기

송해설가 김광식(수필가)

파란하늘과 어우러진 하얀구름은 한층 올라가고 더위는 한풀 꺾이니 가을인가 싶다. 소슬한 하늬바람이 분다. 하늬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다.

하늬바람은 상쾌함을 불어넣고 바람의 기운을 맛보게 만든다. 풀벌레 소리보다 가까운 가을은 이제 색의 다양함과 화려함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오늘은 모감주나무에 대해 알아본다. 모감주나무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속씨식물 낙엽활엽교목이다. 중국, 한국이 원산지로 세계적인 화귀수 중으로 분류된다. 하늘을 향하여 곧추선 긴 꽃대에 촘촘히 피어난 화려한 황금빛 꽃이 7, 8월의 질푸른 녹음에 도 전혀 주목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단연 매력만점의 나무다. 다른 나무들은 한창 땀си 자랑에 여념이 없는 봄날에 모감주나무는 꽃 피우는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파리만 조금씩 넓혀가고 꽃대의 기본틀만 잡으면서 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날만을 기다린다. 대체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걸쳐 갑자기 꽃대를 타고 온통 노란꽃으로 나무를 덮어 버린다. 서양에서는 황금비 내리는 나무(Gold rain tree)라 부른다. 노란색 꽃이 떨어진 것을 ‘황금색 꽃비가 내렸다’고 표현한다.

꽃이 지고난 뒤 여기저기에 원뿔을 거꾸로 세운 것 같은 청사초롱이 연상되는 특별한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지만 차츰 갈색으로 변하면서 얇은 종이 같은 껍

질이 셋으로 길게 갈라진다. 안에는 콩알 크기만 한 윤기가 자르르한 까만 씨앗이 보통 3개씩 들어있다. 만질수록 반질반질해지므로 염주의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모감주나무 열매로 만든 염주는 큰스님들이나 지닐 수 있을 만큼 귀하다. 이런 불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꽃말은 ‘자유로운 마음, 기다림’이라고 한다.

다음은 미루나무다. 미루나무는 높이 30m, 지름 1m까지 자라는 버드나무과의 낙엽활엽 교목이다. 아름다운 버드나무, 혹은 미국에서 들어온 나무란 뜻으로 ‘미류(美柳)나무’라고 부르던 것이 국어맞춤법 표기에 맞추어 미루나무가 되었다. 양버들과 비슷하지만 가지에 털이 없고 황단면이 돌출지만 생장이 왕성한 맹아에는 능선이 있다. 잎이 가지에 붙어 있는 부분인 열병은 길고 편평하므로 바람에 잘 흔들린다. 꽃은 암수가 각각 따로 그루에 달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수나무뿐이다. 생장이 빠르며 이삭이 잘 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으나 거의 사라지고 양버들만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일 큰나무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구내에서 자라고 있다. 꽃말은 ‘아쉬움’이다. 가을은 꽃이 예쁘지 않은 일이 없다. 열매가 소중하지 않은 일도 없다.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열 개의 꽃잎이 힘을 모으고 스무 개의 잎사귀들은 응원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야 가을은 우리 눈에 보이면서 여름이간다. 가을에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며 몸조심하는 것은 열매 때문이다. 소중한 씨앗을 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가을에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낙엽을 떨구어 나무가 지니고 있는 덕목을 배워 소중한 마음의 씨앗 하나 정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전동휠, 쉽게 생각하다 큰코다쳐

도로교통법상 놀이기구 아닌 원동기… 교통사고 급증 추세

최근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한 개인 이동수단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개인 이동수단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 칭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이동수단은 운전이 간단하고 휴대가 쉬워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필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에 관하여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필자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유익한 균을 함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 자연히 유산균, 대장균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된다.

요구르트와 김치에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유익하다고 알려진 유산균이 사실은 대장균의 한 종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보통 대장균은 모두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고 병원성과 전염성을 가진 유해한 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대장균이 병원성과 전염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 정도의 대장균이 서식하는데, 여기에는 유익균, 중립적인 균, 유해균이 있다. 유익균은 우리 몸에 이로온 균이고, 중립적인 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서 유익하게 또는 해롭게 작용하는 균이며, 유해균은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을 의미한다.

치즈, 요구르트, 김치 등의 발효 식품에 존재하다가 장으로 이동하는 유산균은 장내에 서식하는 유익균에 속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으로서, 유익균과 유익하지 않은 균을 모두 포함한다. 유익균에 속하는 유산균은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인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부과대상 및 납부자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징수되며 후납제입니다
○부과기준일 및 부과대상·납부기간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대상 기간 (사용기간)	납부기간
2019년 2기분	2019. 6. 30.	2019. 1. 1. ~6. 30.	2019. 9. 16. ~9. 30.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오염·무공해 공정 기술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납부안내 및 문의
○납부방법 : 시중은행(유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포함), 인터넷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문의 : 부산진구 환경복지과(☎605-4385)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안내 ◀

-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과 가상계좌로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수납방법** : (etax.busa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CD/ATM기, 스마트폰 납부, ARS : 1544-1414(유료)
- **이용시간** : 07 : 00 ~ 22 : 00(365일 수납 가능)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 비씨), 가상계좌

신혼부부·청년 대상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원하는 생활권·주택을 직접 선택
- ✓신혼부부 대상·19년 한시적 자격완화 혜택
-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주거안정 지원

구분	신혼부부 I	청년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세어형 85㎡ 이하)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주택 구성원으로 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I 유형 자격조건을 신혼부부I자격을조건으로 완화하여 적용, 신혼부부 II는 2020년 모집계획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19세~만39세로서 공공신청지역 이외의 지역 출신자(부·모 거주지 제외) ※ 4순위 신청자는 부·모 주소지 적용 제외
지원 한도	9,500만원	9,500만원
임대 조건	입주자부담금(지원금의 5%) 월임대료 연 1~2%	입주자부담금(100~200만원) 월임대료 연 1~3%
모집 기간	~ 19. 12. 31까지	1·2순위 : ~ 19. 12. 31까지 3·4순위 : ~ 19. 10. 14 17시까지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신청 ※ 소득 및 자산기준, 기타 상세 내용, 필요서류 등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바람	
문의	전 화 : 1670-2581, 1600-1004 인터넷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문화원 하반기 문화탐방 안내

부산진문화원(원장 박수용)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문화탐방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답사일자 : 2019. 10. 30.(수) 07 : 00~20 : 00
- 답 사 지 : 전남 장성 일원 (백양사, 장성호, 측령산 관백숲 등)
- 참가대상 및 참가비 : 문화원 회원(3만원), 일반 주민(4만원)
- 접수기간 : 2019. 10. 1(화)~10. 18(금) (간식, 입장료, 점심식사, 보험가입 제공, 18일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접수장소 : 부산진문화원 사무국(신청순 200명)

※ 답사지는 시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 부산진문화원 817-9648, 9650

부산진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한가락 이든 소리꾼] 국악동아리 무료공연!!

부산진문화원(원장 박수용)은 [2019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국비사업으로 재능기부 무료국악봉사공연을 매년 하고 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고전무용, 통기타, 난타** 등의 팀으로 구성된 [한가락이든소리꾼] 동아리팀이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일시 : 2019.10.11(금) 오후 3시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공연장(분수대 옆)

문의 : 부산진문화원 사무국(817-9648, 9650)



포도 에세이

대풍 예감

가을이 깊어간다. 푸른 들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산과 밭도 오색으로 빛난다. 힘겨운 여름을 잘 견딘 자연은 더욱 아름답고 맛있게 익어 간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을 보상이라도 하듯 시시각각 진경산수

로 다가와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 오방색만큼이나 농심도 무지개처럼 빛났으면 좋겠다. 대풍소식이 구름처럼 몰려왔으면 좋겠다.

—전북 진안 마이산이 보이는

가을 들녘에서
이무현 사진가(양정동)

제과제빵 명장을 꿈꾸는 중학생들

카페디저트 동아리 ‘안다미로’ 깜짝 실력 과시

마카롱·카나페 척척 만들어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정명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카페디저트 동아리 ‘안다미로’가 화제다. 안다미로는 ‘답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이 동아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동아리에서 주 1회 제과제빵 수업을 받는다. 안다미로는 지난 8월 19일 진포동에서 개최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 초청돼 멋진 디저트를 만들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행사 당일 안다미로 동아리는 시원한 에이즈와 커피, 그리고 달콤한 마카롱과 카나페 등을 직접 굽고 만들어 개관식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사진)

행사에 참여한 부산시교육감과 부산진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등은 물론 부산진구 관내 초·중·고교장과 진로관련 교사, 학부모들도 중학생들이 직접 만든 마카롱과 카나페 등을 맛본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A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볼 때는 마냥 절없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 대견하다.”라며 칭찬했다.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의집은 부산진구청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부산진구 관내 중학교 1~3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진로지도, 상담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상담은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계 (605-4864), 부산진구청청소년문화의집 (805-3114)

■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달의 추천도서(9월)

백정의 아들 우양의 성장소설 ‘경성설령탕’

신입사원이자 트렌드 리더 ‘90년생이 온다’

■ 어린이 [유아] ▶ 어느 여름날/고혜진 지음/국민서관=어느 더운 여름날, 북극곰 키키네 가족은 더위에 지쳐 푹잠 앓고 누워 있다.

이럴 땐 시원한 물속에서 노는 게 최고다. 함께 물 위로 뛰어오르고, 빙그르르 춤을 추고, 누가 멋있나 대결도 한다.

이번엔 솜바꼭질을 할 차례이다. 술래인 키키는 친구들이 숨을 수 있도록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는데... 북극곰 키키를 바라보는 강렬한 시선에 끌려 멈춰 선다. 누가 키키를 보고 있는 걸까?

[문학] ▶ 1930, 경성 설령탕/조은경 지음/머스트비=설령탕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과 경성 설령탕 가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여 낸 <1930, 경성 설령탕>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우양이가 고난을 겪으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깨닫는 성장 소설이다.

■ 청소년 [문학] ▶ 맨발의 소녀/

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 지음/라임=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가 쓴 이 책은 한마디로 힘이 넘친다.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굴곡진 역사를 배경으로, 가족의 자격과 의미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다부진 성격의 주인공 에이디와 정교하면서도 탄탄한 짜임새, 유머러스하면서도 절제된 언어의 미학이 돋보인다.

■ 일반 [사회과학] ▶ 90년생이 온다/임홍택 지음/웨일북=90년대 생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 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 가 되어 우리 곁에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인터뷰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문의 :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605-5802)

부산시민공원에서 BIFF 공식행사 영화감상

10월 3일~10월 12일까지

국립아트센터 부지 잔디광장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매일 한국영화 1편 상영

배우·감독 등 게스트 초대

선선한 가을 밤, 드넓은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열을 동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부산진구와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의 전당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부산시민공원 내 국립아트센터 부지(북문 잔디광장)에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그동안 남포동과 해운대에서 개최되던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행사를 교차편의와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시민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행사다.

상영회 기간 매일 오후 7시마다 BIFF가 선정한 한국영화 1작품이 상영된다. 상영되는 작품은 허니(김기영 감독), 서편제(임권택 감독), 바람 불어 좋은 날(이장호 감독), 살인의 추억(박종환 감독), 바보들의 행진(하길중 감독), 만다라(임권택 감독), 화녀(김기영 감독), 휴일(이만희 감독), 최후의 증인(이두용 감독), 오발탄(유현목 감독) 등 한국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품들이다. 10월 5일 토요일은 오후 8시30분부터 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 기간 동안 해당 영화를 만든 감독과 출연 배우를 만날 기회도 마련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임권택, 이장호 감독을 비롯해 안성기, 하재영, 전무송, 윤여정, 김승수, 달시 파켓 등 배우들이 매일 초대돼 관객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 일지별 상영작 및 무대인사 현황

상영일자	시작시간	작품명	감독	무대인사
10. 3. (목)	19:00	허니	김기영	정형석, 김승수, 서윤아
10. 4. (금)	19:00	서편제	임권택	임권택
10. 5. (토)	20:30	바람 불어 좋은 날	이장호	이장호, 안성기
10. 6. (일)	19:00	살인의 추억	박종환	달시 파켓
10. 7. (월)	19:00	바보들의 행진	하길중	하재영
10. 8. (화)	19:00	만다라	임권택	전무송
10. 9. (수)	19:00	화녀	김기영	윤여정
10. 10. (목)	19:00	휴일	이만희	백결, 이혜영
10. 11. (금)	19:00	최후의 증인	이두용	게스트 미정
10. 12. (토)	19:00	오발탄	유현목	-

무대인사 진행 모더레이터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배우 명계남, 평론가 권상희 씨가,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배우 김꽃비 씨가 각각 맡는다. 영화상영 및 무대인사는 일정상 변경될 수 있다.

10월 3, 4, 11, 12일은 영화 상영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식전 공연행사가 열린다.

10월 3일은 가수 이재성, 4일은 퓨전국악연주단인 우리소리우리가 전국과 피네, 11일은 가수 김원, 12일은 댄스가수팀인 라인업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영화는 잔디광장에 설치된 대형 에어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영화관람을 위해 돗자리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계 (605-4632)

달빛 보며 숲길 걷고… 별빛 보며 음악 듣기

10월 19일 백양산 달빛 걷기·산사음악회 개최…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해 출연

깊어가는 가을밤 달빛을 보며 백양산 숲길을 걸어보자. 숲길 걷기가 끝나는 선암사에서는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 씨가 출연하는 낭만적인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다.

부산진구는 10월 19일 토요일 백양산 숲길 감성 달빛 걷기대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다.

달빛 걷기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다. 참가 희망자는 초·중·고 어린이대

공원 BNK키드키드파크에 집결하면 된다. 이곳에서 등(燈) 만들기 체험에 참가해 야간 숲길 걷기에 필요한 등을 만들면 된다. 이어 오후 5시 식전 공연을 감상한 후 5시 30분에 출발한다. 코스는 BNK키드키드파크를 출발해 동쪽문, 비룡폭포, 바람고개를 거쳐 선암사까지 3km 구간이다. 참가자들은 달빛과 별빛이 빛나는 저녁 7시 정도에 선암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암사에 도착하면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퓨전국악연주단인 우리소리우리가 락풍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어 펍페라그룹 해피앙상블의 재미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해피앙상블 무대가 끝나면 대한민국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강하달림(강경순)이 출연해 대중가요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 씨가 출연해 국악을 들려준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산의 명산인 백양산의 정취도 구경하고 평소 체험



하기 힘든 달빛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며 “유명 스타들이 출연하는 낭만적인 산사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계 (605-4091), 예술진흥계 (605-4634)

얼굴 곱고 마음은 더 고운 부산 최고 미인



올해 부산 최고의 실버미인을 뽑는 '제12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르신 선발대회'가 지난 7월 26일 부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부산 최고의 미인에는 부산진구 대표로 나간 담갑1동 구민선 씨가 뽑혔다. 왕관을 쓰고 활짝 웃는 구민선 실버미인 진은 누가 봐도 미인 중의 미인이다.



넘는다. 호적에 늦게 올랐다. 칠십 평생 거의 절반을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봉사하면서 받은 표창장이며 위촉장이 수도룩하다. 1999년에는 자원봉사 4,000시간을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장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이력이 무대에 서도 전혀 떨리지 않게 했고 오히려 즐기게 했다.

“윤종문 회장님은 봉사 많이 했으니 나가보라 그랬고 오두이 회장님은 노래 잘하니 나가보라 그랬어요.” 구민선 씨가 이번 대회에 나간 데는 주변의 권유가 컸다.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윤종문 회장의 추천이 있었고 전포종합복지관 노래교실 오두이 회장의 권유가 있었다. 봉사도 봉사지만 구민선 씨는 노래를 잘 부른다. 가수 수준이다. 노래로 받은 상도 꽤 된다. 21살에 연지동 추석노래자랑에서 ‘흑산도 아가씨’를 불러 1등 했고 1973년 부산시민회관 개관 기념으로 열린 부산시 노래자랑에 참가해 당갑1동 대표로 나가 2등 했다. 1991년 한국자유

총연맹 부산진구지부 송년의 밤 노래자랑에선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실버미인 무대에서도 노래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다들 넘어갔다. ‘내가 지져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 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로 시작하는 ‘천년지기’였다. 큰아들과 두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객석에서 난리가 났다. 실버미인 진에 뽑힌 ‘결정적 한 방’이었다. MC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줄줄줄 대답하며 친구처럼 대했다. 한마디로 당당했다. 실버미인이 되려면 어떠한가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고 모두의 예상대로 진에 선발됐다.

“식당 하고 싶어도 다 퍼준다고 남편이 못하게 해요.” 구민선 씨는 평생 돈을 벌여본 적이 없다. 직원 10명을 두고 큰 이발소를 운영했던 아버지가 부자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공한 줄 모르고 살았다. 돈에는 구애받지 않고 지냈지만 사람은 늘 그러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

런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가진 것을 흔쾌히 나누었다. 입은 웃을 벗어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네 못만 주고 내 웃은 주지 말라’ 할 정도였다. 40년 넘은 봉사활동도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했으리라.

“마음을 잘 써야지요. 내 마음이 고와야 남도 곱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고와지고요.” 아름다운은 영원한 기쁨이고 누구나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다. 어릴 때부터 곱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는 ‘일흔이 조금 넘는’ 미스 진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워질 수 있느냐고,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마음을 잘 써야 미인이었다.

70년대 대중가요 한 소절이 떠올랐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고 보면 구민선 실버미인 진은 얼굴이 참 곱고 마음은 더 참 곱다. 인터뷰하는 나까지 은근슬쩍 고와지는 듯했다.

dgs1116@hanmail.net